

『三千里』의 미디어이벤트와 ‘재가공’된 조선

- ‘半島八景’을 중심으로

박용재(동국대)

〈목 차〉

1. 서론
2. 『三千里』의 ‘미디어이벤트’와 조선학운동의 전사(前事)
3. 경합과 합의의 공간으로서의 ‘半島八景’
4. ‘선택된 것’으로서의 ‘조선’이라는 공간과 ‘2차 텍스트’
5. 결론

1. 서론

『三千里』는 창간 당시부터 ‘조선’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했다. 그 결과 다양한 기획들을 통해 ‘조선’을 발견하고 알리는 데 주력한다. 그것은 1930년대 중반 한국 민족주의 운동의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였던 조선학운동의 전사(前事)를 보여준다. 『三千里』에서 과거 조선 민족의 고유성을 발견하고 보존하려는 ‘조선학운동’은 ‘미디어이벤트’를 통해 잘 드러난다. 특히, 창간호의 ‘半島八景’ 이벤트는 조선 반도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뛰어난 ‘景勝’을 기행하고 민족의 과거 ‘史蹟’들을 순례하는 대표적 미디어

이벤트였다. 그 기획 안에서 ‘조선’의 경치는 모든 민족구성원에게 자연화된 장소라기보다 ‘景’의 의미를 둘러싸고 경합해야 했던 대상이었다. 경합과 합의의 과정은 실제 이 미디어이벤트의 기획 하에 게재되는 기행문에서 다양한 편차로 나타나게 된다. 흥미롭게도 그 편차는 텍스트의 창작시기와 개작이라는 물질적인 관계에 의해서 발생한다. 반도팔경 기행문들은 동시기의 텍스트라기보다 편집자, 혹은 필자가 원본 텍스트를 발췌하거나 개작해 발표했던 것이다. 이는 원본에 대한 2차 텍스트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왜 특정한 텍스트가 ‘선택’되고, 어떻게 ‘가공’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각기 다른 의미망에 분포되어 있던 원본 텍스트들이 재배치되면서 일으키는 마찰은 이 기획이 식민지-제국이라는 영향권 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¹⁾ 그리고 그것은 ‘조선’이라는 공간이 원전이 다른 텍스트들의 물질성을 통해 ‘선택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글은 『三千里』의 ‘미디어이벤트’를 통해 1930년대 전반기 한 매체가 비제도적으로 ‘조선’을 규정하려 했던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지금까지 『三千里』는 흥미 위주의 잡지라는 고정 관념 하에서 식민지시기 몇 안 되는 장수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²⁾ 물론, 『三千里』에는 지식인을 위시로 대중들의 ‘오락’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192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초까지, 즉 1930년대 전시기에 걸쳐 식민지 조선의 급격한 시대적 변화들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것도 분명하다. 『三千里』라는 매체 내에 존재하는 담론 층위의 편차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이해 가능하다.³⁾ 다시 말해, 『三千里』

1) 1930년대 고전부흥론과 조선학 운동에서 민족적 동일성의 확립을 위해 강조된 ‘조선적인 것’이 어떻게 식민주의의 자장 안에서 제국 일본의 제도적 틀로 관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김병구, 「고전부흥의 기획과 ‘조선적인 것’의 형성」, 민족문화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조선적인 것의 형성과 근대문화담론』, 소명출판, 2007을 참조.

2) 정진석은 『三千里』가 1929년 7월에 창간하여 1942년 1월까지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통권 192호를 발행하여 식민지시기 종합잡지 가운데 최장수 기록을 세웠다고 주장한다. 정진석, 『언론유사』,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335쪽. 이 책에서 그는 『三千里』의 창간을 1929년 7월로 표기하고 있지만 사실 『三千里』는 1929년 6월에 창간되었다. 뿐만 아니라 통권 192호에 대해서도 논자마다 그 주장이 다르다. 정진석 또한 『三千里』 영인본 해제에서 창간시기와 통권수를 1929년 6월, 총 152권으로 변경해놓았다. 鄭晋錫, 「解題-巴人 金東煥과 『三千里』, 『三千里』 창간호(영인본), 1929. 6, 6쪽. 최덕교도 1929년 6월 창간에 통권 152권이라 명기하고 있다.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3』, 현암사, 2004, 153면.

는 그 구성과 기획에 있어서 ‘대중성’과 ‘정론성’을 동시에 획득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이다. 『三千里』의 ‘미디어이벤트’는 그런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三千里』라는 매체가 동시기의 타매체와 변별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미디어이벤트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은 대중적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기획력과 ‘조선’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 즉 앞서 말한 대중성과 정론성의 동시 획득이라는 매체의 지향을 『三千里』의 미디어이벤트가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 『三千里』의 ‘미디어이벤트’와 조선학운동의 ‘전사(前事)’

『三千里』라는 매체를 규정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타매체와 『三千里』를 변별해주는 가장 큰 특징은 미디어이벤트에 있다.⁴⁾ 『삼천

-
- 3) 『三千里』는 단일한 성격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매체 가운데 하나다. 이는 매체 내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기사군들의 배치에 의해 발생하는데 가령, 정론성 짙은 기사와 함께 가십이나 笑話, 그리고 당대 유명 인사들의 스캔들이나 여성의 책수열리트를 강조하는 기사,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며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케 하는 설문, 좌담 등 실로 그 스펙트럼이 광범위하다. 이러한 한 매체 내의 ‘이질성’은 『삼천리』가 겨냥한 독자층이 광의의 ‘대중’이었음을 방증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문매체의 특성이 잡지 구성에 흡수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가능할 것이다. 김동환은 이미 동아, 조선 및 다양한 신문기자 이력을 가지고 있고, 또 『三千里』 발행과 신문기자직을 병행하기도 했다. 물론, 신문기자의 이력만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정치, 사회, 문학, 여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三千里』의 특징이 1면 정치면, 2면 사회면, 3면 학예면, 4면 경제면과 같은 1920년대 신문매체의 지면구성방식과 흡사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신문’과 ‘잡지’라는 매체의 상호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920~30년대 신문 매체에 대해서는 조영복, 「1930년대 신문 학예면과 문인기자집단」,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2집, 2002. 12.; 이혜영, 「1920년대 『동아일보』 학예면의 형성과정과 문학의 위치」,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제52집, 2005를 참조.
- 4) 지금까지 『三千里』가 지니고 있었던 차별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은 ‘취미 중심의 대중오락지’라는 관념과 김동환이라는 발행인의 개인적인 능력을 부각시키는 것이 주류였다. 정진석, 『인물한국인문사』, 나남출판, 1995, 259쪽. 뿐만 아니라 김윤식도 “3대 민간신문사에서 나온 ‘신동아’, 「조광」, 「중앙」 등과 나란히 가면서 「삼천리」는 그만의 특이성을 지녔는데, 당시의 시대상, 사회상 뿐 아니라 풍속상, 생활상의 다양함이 그것”이라고 말한다. 金允植, 『三千里』 잡지 등 영인본 발간에 부처, 『三千里』 창간호(영인본), 1929, 6, 5쪽. 그리고 당대의 인사였던 金萬은 “저급한 목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독자의 호의를 만족시킬만한 내용이 없다”(『雜誌記者漫評』, 『東光』, 1931. 8, 62~63면)도 했으며 주요한 또한 기발한 김동환의 편집기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朱耀翰, 「서로 본 서로-상호 인상기」, 『新東亞』, 1932. 1.; 김영식, 「퍼내는 말-「삼천리」 발간에 즈음하여」, 『三千里』 창간호(영인본), 1929.

리』는 다른 매체가 시도하지 않은 이벤트들을 대거 시행하면서 타매체와의 변별점을 부각시키고 있었고, 그러한 시도가 초기 『삼천리』의 성격을 드러내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소그룹화된 동인지가 아닌 전문적인 매체의 출판과 유통에는 자본의 순환이 안정적으로 선결되어야만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모든 매체는 자본의 구속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잡지의 상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요소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미디어이벤트’는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수단이자⁵⁾ 매체의 특수성과 지향점을 드러내는 데 효율적인 방식이었다.⁶⁾ 미디어이벤트가 매체의 지속성에 기여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미디어이벤트로 ‘현상공모’를 들 수 있다. 안정적으로 독자수를 확보하기 위한 미디어이벤트로서 현상공모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⁷⁾ 하지만 『三千里』의 미디어이벤트는 이러한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다.

6, 14~15면.)

- 5) 미디어이벤트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리아마 테루오(有山輝雄), 『甲子園蹴球と日本人』, 吉川弘文館, 1997; 요시미 순야(吉見俊哉), 『メディア イベント 概念の諸相』, 津金澤聰廣 編著, 『近代日本のメディア イベント』, 同文館, 平成八年을 참조. 특히, 아리아마는 ‘의사 이벤트’의 개념을 빌려와 그 특징을 자연발생적이지 않고, 누군가가 그것을 계획하며 혹은 선동하기 위해 일으키는 것이며 현실과의 관계는 애매하지만 이 애매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흥미를 일으킨다고 말한다. 또한 실제와는 상관없이 매스미디어의 선전에 의해 현실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역전현상까지도 발생한다. 이는 매체의 경영전략이자 타매체와 차별화를 가시화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당대인들로 하여금 ‘리얼’한 체험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효과를 일컫는다.
- 6) 가령, 『동아일보』 창간 후 첫 미디어이벤트는 ‘檀君影幀懸賞募集’인데 그것은 단순한 독자수 확보라는 상업적 측면을 넘어선 다양한 시대적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다. 그만큼 미디어이벤트는 그 매체의 성향과 지향점을 나타내는 ‘지표’이면서 다른 매체와의 변별점을 보여주는 ‘개성의 표지’로 기능할 수 있다.
- 7) 그런 점에서 일본의 『万朝報』가 후발주자로서 다른 신문매체와 경쟁하기 위해 ‘每週懸賞募集’이라는 획기적인 기획을 제시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고노 겐스케(紅野謙介), 『懸賞小説の時代』, 『投機としての文學』, 新羅社, 2003을 참조.

번호	미디어이벤트명	일시	비고
1	全朝鮮文士公薦 新選 '半島八景' 發表	1929. 6(창간호)	소개 및 발표
2	三千里賞 設定	1930. 1	과학상과 예술상 선정 시상
3	三千里一色	1931. 9	발표는 1931. 10
4	朝鮮日報 東亞日報 社長公薦	1931. 10	발표
5	三千里 公開狀	1931. 10	장덕수
6	懸賞發表	1931. 10	배반한 동지에 관한 이야기
7	懸賞實話	1931. 10	삼각관계에 관한 실화
8	民族文化館 創立發表	1932. 1	소개
9	半島突進隊 運動	1932. 1	소개 및 논문
10	誌上 靑年學徒雄辯大會	1932. 1	발표는 1932. 2
11	秀才學生學資補助	1932. 1	소개
12	朝鮮出版文化展覽會	1933. 3	소개
13	英文豪씨너드 翁翁 文藝講演會	1933. 3	소개
14	朝鮮民謠와 舞踊會開催	1933. 3	소개

※ 이상 1935. 12월까지의 『三千里』내 미디어이벤트를 목록화한 것임.

창간 후부터 5년 간 『三千里』의 미디어이벤트는 현상공모보다는 대형미디어이벤트에 집중되어 있다.⁸⁾ 이들 미디어이벤트들은 몇 가지 점에서 타매체의 이벤트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예컨대, 모든 '대항매체'를 비교하지는 못했지만⁹⁾ 동시기 『別乾坤』의 미디어이벤트는 대개 '懸賞公募'와 흥미 위주의

8) 표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창간 초기에 의욕적으로 계획되던 『三千里』의 미디어이벤트는 대부분 1935년을 전후로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 이유는 창간 당시 타매체와의 경쟁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해 획기적인 미디어이벤트를 계획했지만 점차 매체 생산·유지에 안정적인 루트를 확보하게 되자 가급적 지상(紙上)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연재의 형식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三千里』는 『평화와 자유』나 이광수, 김동인, 최서해 등의 문학선집, 그리고 『三千里』내에 게재됐던 글들을 단행본 형식으로 편집해 판매했다. 그 중 여러 논자들의 글을 엮어 모은 『평화와 자유』는 해내외에서 주문이 압도하고 있다는 社告도 보인다. (『感謝와 謝罪』, 『三千里』, 1932. 3. 1, 112쪽) 또한 이러한 대형 미디어이벤트의 감소는 문예면의 증면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초창기 문예면이 지극히 빈약했던 『三千里』는 점차 문예면의 비중을 늘려 1934. 7월 『初夏文藝特輯』 이후부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9) 대항매체, 그리고 상업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三千里』가 당대 경쟁 잡지들을 대하는 태도가 시장의 논리에 반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三千里』의 자매지인 『萬國婦人』의 발간이 연기된 것에 대해 편집국에서는 타매체에서 여성·부인 관련 잡지를

이벤트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도 거론했듯이 매체의 상업성에 일조하는 기능을 미디어이벤트가 담당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三千里』의 미디어이벤트는 구독자 수와 직결될 수 있는 응모자 수나 지속성의 측면에서 『別乾坤』과 비교될 수 없었다.¹⁰⁾ 그런 까닭에 위 표에 열거한 대부분의 미디어이벤트들은 일회성에 머물거나 미완에 그치고 만다.

그렇다고 해서 『삼천리』가 시도했던 미디어이벤트를 실패했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삼천리』의 미디어이벤트는 당대 식민지 조선이 처한 시대적 조건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모색의 과정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것은 소위 1930년대 ‘조선학운동’에 대한 ‘전사(前事)’와 무방하지 않다. 이지원에 따르면 1930년대 민족주의 문화운동의 특징으로 ‘문화혁신론’과 ‘조선학운동’을 들 수 있는데 전자가 위인의 유적을 보존, 선양함으로써 조선 민족의 유구함과 고유성을 재확인하고 합법적인 영역에서 개량적인 문화운동을 전개했다면 후자는 ‘조선문화운동론’을 제기하면서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근대 민족국가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전통’에 집중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문화혁신론’자들이 부르주아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민족주의를 강화했던 반면, ‘조선문화운동’론자들은 1910년대의 주체적이고 저항적 국수보존론과 1920년대 좌우합작적인 민족문제를 계승하여 계급성과 세계성이 병존하는 ‘제3신생적 민족주의’를 제시했다는 것이다.¹¹⁾ 『三千里』의 미디어이벤트가 이들 가운데 어

내고 있기 때문에 추후로 미룬다는 글이 발견된다. 『삼천리』가 자매지 발간을 연기했다는 것은 조선인 발행 출판물이 점차 줄어가는 상황 속에서 시장의 논리로만 잡지 출간을 할 경우의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 10) 예를 들어 매일 백미 한 섬을 걸고 공모를 유도하는 『別乾坤』의 ‘白米懸賞’을 들 수 있다. 1929년 9월에 실시된 「南北隊探訪記審判投票當選發表」의 응모자 수는 9,027명이었으며 「外國女俳優찾기」(1929. 6)는 만명(11,883)을 넘을 정도였다. 한편, 이러한 현상공모의 경우 응모권 자체를 책 속에 1매씩 포함했기 때문에 책을 구입하지 않으면 현상공모에 응모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응모자의 총수는 잡지 구독자 집합에 포함된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삼천리』의 <誌上 青年學徒雄辯大會> 같은 경우, “但本誌讀者 아니라도 歡迎합니다”라고 까지 밝히고 있다. 『三千里』, 1932. 1, 62면.
- 11) 한말부터 1930년대까지의 민족문화운동에 대해서는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해안, 2007)의 저서를 참고. 민족주의 운동의 다양한 갈래들을 구체화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다만, 위에서 구분한 혁신론자들과 조선문화운동주의가 각각 파시즘적이고 반과시즘적으로 양분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아마도 저자에게 민족주의 문화운동의 계승과 정통성 유지, 계보화의 욕망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안재홍을 위시로 한 조선문화운동론자들과 ‘실학’의 의미를 강조한 대목에서 그러한 욕망을 발견할 수 있다.

느 쪽에 가까웠는가를 묻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대부분의 미디어 이벤트들이 비제도적으로 운위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거론한 혁신론과 조선문화운동론 모두 단순히 담론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李忠武公遺蹟保存會’나 ‘丁茶山기념사업회’, ‘朝鮮文化建設協會’ 등을 조직하여 ‘조선’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으로 나아갔다면 『三千里』의 미디어이벤트는 이렇게 제도적 차원으로 정착되기 이전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 ‘半島八景’이나 ‘民族文化館 創立發表’, ‘朝鮮出版文化展覽會’, ‘朝鮮民謠’에 대한 기획들은 그 구체적인 예 가운데 하나이다. 그 가운데에서 ‘민족문화관’ 설립 계획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雜誌『三千里』와 多數한 出版物을 通하여 半島文化的 建設에 犬馬의 誠을 다하여오든 本社는 이제사로 ‘民族文化館’을 創設하여 民族百年의 大計에 一翼의 所任을 다하고저하나이다. 大概 自覺있는 國家社會에서는 自己의 固有文化의 散佚을 막는한편 瞬間瞬間 創造되어 나가는 新文化를 集積하기爲하여 큰 容器인 圖書館을 必要로합니다.(중략)그런데 不幸히 朝鮮에는 民間의 努力으로 된 이 方面의 施設이 아조 零星합니다 잇기야 平壤에 金仁貞女史圖書館 등이 잇스나 그規模 그 施設에잇서 全民族的으로 자랑할 만한 共有物이되기에 는 아직도 不足한바잇습니다. 이것은 慨嘆할일이외다.(중략)民族文化館의 目的이 이러함에 우리가 努力할範圍는 決코 活字化하는 新聞, 雜誌, 圖書의 蒐集에만 잇지만겝습니다. 그도 必要하겠지만 이땅에서 이러나는 모든 山事績을 記述하여 두며 모든 歷史的重要材料을 作製(중략)우리 努力이 三年間을 繼續한뒤 그 제에는 一大會館을 建設(중략)이 大事業을 滿三年後인 一九三四年 이날이時刻 까지에 完成하게하여 주옵소서.¹²⁾(밀줄-인용자)

이상에 따라 설치될 부분은 ‘圖書館’과 ‘調查部’로 나뉜다. 도서부의 경우, “朝鮮內에서 刊行되는 新聞, 雜誌, 單行本, 地圖, 繪畫, 冊子, 포스타-統計表, 마-크, 版畫, 寫眞, 筆蹟 등을 全部蒐集”하겠다고 밝힌다. 책을 기증한 인물과 기관은 朝鮮日報, 東亞日報, 中央日報, 東光, 新東亞, 彗星, 批判 등과 안재홍, 이광수, 이선근, 배성룡, 김억, 주요한, 김동인, 이여성, 김세용(金世鎬), 최학송의 저서 전부였다.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호에 다시 기재한다고 밝혔으며

12) 『三千里』, 1932. 1, 10면.

앞으로도 기증 받는대로 그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各新聞社, 雜誌社, 出版書肆及 學校集團其他諸氏에서 請込대 發行되는 印刷物과 其他 必要圖書와 記錄을 一部式 반드시 寄贈하여야 시압 또 印刷化하지 안은 原稿도 보내주시면 鄭重히 保管하겠습니다.”라고 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일견 강압적으로까지 보이는 이 ‘仰託件’에서 흥미로운 점은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미디어뿐만 아니라 뼈라나 포스터와 같은 선전 문구, 그리고 문자 텍스트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미지 자료까지 수집하려 했다는 점이다. 실로 조선 내 발행되는 모든 서적들, 다시 말하면 모든 ‘기록물’들을 수집, 보존하려 했다는 사실이다.

한편 ‘調査部’의 목적에 대해서는 “朝鮮의 現勢를 調査研究하는 것”이라 말하면서 “商, 工, 農等 産業方面은 勿論, 政治, 經濟, 社會, 宗教文藝, 演劇, 音樂等” 전부문에 대해 “全朝鮮의 實際를 探索하고 整理하며 作用”하려는 계획이었다. 후일 外地에 있는 사회문제연구소 마냥 각 방면의 전문 학자까지 초빙해 그 내실을 기하겠다는 다짐도 하고 있다. 그리하여 “外來하는 諸般文化가 이 ‘民族文化館’의 大鎔鑛爐속에서 溶解”되어 “모든 素材가 여기를 거처 形相을 갖게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다. ‘조사’라는 것이 학술적인 면과 관계한다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예술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조선학’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는 의미와도 같다. 민족문화관이 고래로부터 전해지는 ‘문헌’, 즉 ‘문서 및 활자, 그리고 기록’에 의존한 ‘과거사’의 학문화라면 이 ‘조사부’는 소위 ‘실지조사’를 통한 동시대성의 획득과 그것의 ‘학문화’에 다름 아니다.

기획자는 3년 후 민족문화관을 설립하자고 다짐했지만 1935년이나 그 이후에도 그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는다. 용광로와 같이 ‘조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쓸어 담은 민족문화관이라는 것은 일개 잡지사에서 수행하기엔 애초부터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이는 193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되는 조선학 운동의 한 갈래로서 식민지 제국이라는 범주를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 조선에서 출판되는 것들을 조사하고 발굴, 보존하겠다는 계획은 총독부에 의해 190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오던 ‘조사사업’의 성과가 반영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인에 의해서 발견된 ‘조선’을 답습하는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¹³⁾

13) 후에 서술하겠지만 <반도광경>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광수의 낙화암 기행은 흥미롭게도 그 전거가 이미 「五道踏破旅行」에서 발견된다. 이 기행문에 대해 이광수의 내면의 갈등은 차치하더라도 총독부의 후원과 식민통치의 선전 의도로 실행된 것임은

3. 경합과 합의의 공간으로서의 ‘半島八景’

『三千里』 창간호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으로 「全朝鮮文士公薦 新選 ‘半島八景’ 發表」를 들 수 있다. 홍명회를 비롯해 이광수, 김기진, 염상섭, 김동인, 한설야, 박팔양, 임화 등등 당대 문사들을 거의 총망라하여 조선의 八景을 추천하여 달라는 우편물을 보내고 그 답신을 바탕으로 ‘半島八景’을 새롭게 지정¹⁴⁾한 이 기획은 그 의도에서부터 남달랐다. 편자에 따르면, “近來에 그릇된 엇던 作爲의 所致로 젊은이들 사이에 山川까지 남의 것을 더 낮게 讚嘆하는 可痛할 傾向이 보임으로 그를 匡正하여 노으려함과 또한가지는 우리의 名勝이란 大概 歷史的 背景이 있는 곳이되어 千代後人의 가슴에조차 逼하는 바 만흔 터인즉 모름직이 새로운 史眼을 여기에 던져 更張의 意氣에 쓸는 오늘 民衆으로 하여곰 무엇을 늦기고 무엇을 깨닫게 하도록 하여야 할 것”¹⁵⁾이라며 그 기획 의도를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현 문단의 8인에게 부탁하여 한 사람씩 한 군데를 맡아 그 경치를 손수 밝게 만들어 “入神의 名文章으로 그 紀行文”을 작성토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다음 호(1929. 9)의 벽두에서부터 「半島八景踏查文人發表」¹⁶⁾를 하고 있는데, 선정 장소와 답사 예정 문인을 살펴보면 금강산(홍명회), 대동강(최상덕), 부여(주요한), 경주(김동인), 명사십리(김기진), 해운대(염상섭), 백두산(이광수), 축석루(최학송)로 되어있다. 잡지 창간호의 첫 기획이자 섭외된 문인들의 면면으로 볼 때, 이 기획이 『三千里』라는 잡지의 지향과 상동하는 측면이 상당수 존재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가령, ‘삼천리’라는 잡지명이 환기하는 반도의 ‘景勝’이라는 메타포, 기행문이라는 대중적인 글쓰기 양식, 그리고 1930년대 문화민족주의와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 등이 그것이다.¹⁷⁾ 뿐만 아니라

부정할 수 없다.

14) 선정된 면면은 다음과 같다. 금강산-강원도, 대동강-평양, 부여-충남, 경주-경북, 명사십리-원산, 해운대-동래, 백두산-함북, 축석루-진주

15) 『三千里』, 1929. 6, 34~35면.

16) 『三千里』, 1929. 9, 1쪽. 이후 1929년 11월호에도 같은 광고가 등장하며 이후 빈번하게 ‘반도 팔경’과 관련된 社告 및 광고가 게재된다.

17) 천정환은 그의 글(『초기 삼천리』의 지향과 문화민족주의,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 2008.)에서 『三千里』와 문화민족주의와의 관련성을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半島八景’은 창간호의 첫 미디어이벤트이자 『三千里』 내의 어떠한 다른 이벤트들보다도 발신자나 수신자 측으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거론될 필요가 있다.

창간호에는 半島八景 선정 발표와 추천인의 답변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는데,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먼저 ‘합의’의 문제로 반도팔경에 대한 다양한 편차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김동인의 경우, 그는 처음 이 설문에 대한 답변 글에서도 “景致라하는데 대하여본시 無취미한나는 絶景 金剛山이조흔줄이나 愚景城北洞과구별치를 못합니다. 日本富士山の雄大와 慶州鳳凰台의雄大를구별치를 못합니다.”¹⁸⁾라고 말하면서 愚景과 絶景의 구분이 여행자의 당시 기분이나 동반자, 혹은 체류시간에 따라 감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에게 愚景이었던 경주가 美景으로 남아있었던 이유도 그때 아름다운 동반자가 있었던 때문이고, 善景인 석왕사가 愚景으로 남아있었던 까닭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짝이 있는데 자신만 혼자였던 기억 때문이라고 술회하고 있다. 창간호의 첫 설문에서 또 한명 흥미로웠던 사람은 임화인데, 그는 다른 문사들과는 달리 ‘釜山棧橋, 京城驛頭, 新義州稅關, 鐘路네거리’를 들고 있다. 당시 모더니스트로서 임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설문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景’이라는 어의의 ‘범위’이다.

사전의 차원에서 ‘景’은 ‘풍경’이나 ‘경치’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단순히 『三千里』의 기획이 의도한 바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고전적인 어의의 범위와 함축을 지니고 있었던 글자이다. 중국의 ‘瀟湘八景’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絶景’, ‘名勝’, ‘勝景’, ‘勝地’ 등으로 표현되는 뛰어난 경치를 일컫는 말이었다. 물론, ‘景’이라는 용어의 어의 범위와 그 용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탐색이 요구된다. 소상팔경을 예로 들었지만 고전적인 ‘文’에서 경치를 읊는 관례들, 가령 좋은 경치를 八景에 대입하려는 관습 등이 이 반도팔경의 선정 기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김동인이나 石松 김형원(金炯元) 같은 인물들, 그리고 대개의 답변자들이 이 ‘景’의 어의 범위 내에서 발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형원은 구경한 곳이 별로 없어 유일하게

18) 『三千里』, 1929. 6, 36면.

가본 금강산이 “標準이 許한다면” 넣어달라는 말과 함께, “古跡으로는慶州의 石窟庵가튼곳을 들수있으나 景致를主로써는不可할가하오며 半島의八景이 自然美를主로嚴正하게써혀지기를希望할뿐입니다”¹⁹⁾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경치’와 ‘고적’을 구분하는 의식을 엿볼 수 있고, 그것은 당대 문사들에게 고전적인 용례에 비취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었을 터이다. 게다가 ‘자연미’를 강조한데서 알 수 있듯이 임화가 선정한 ‘景’은 본래적인 용어의 의미에서 한층 벗어나 있었다. 그는 ‘자연미’가 아닌 ‘人工美’를 ‘景’의 어의 범위에 새롭게 편입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일견 모든 ‘반도인’으로부터 합의가 된 것처럼 여겨지는 半島八景은 사실 ‘경합’의 장이자 『三千里』 편집자들에게 의해 ‘합의’된 장이기도 했음은 다음의 두 인용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第二位의 大同江은 좀 엇던가 하지 안을 수 업습니다. 山野를 조금이라도 旅行하여본 이는 大同江과 牧丹峰 一帶의 경치보다 百勝한 곳을 到處에서 發見하겠습니까. 다만 大同江 一帶는 平壤이라 하는 都會를 끼고 따라서 交通이 便함으로 만흔 눈에 띄인 까닭이겠습니까. 만흔 눈에 띄이지 못한 까닭에 大同江과 모란봉 一帶보다 百勝한 경치를 가지고도 다만 근방의 農夫의 낫잡터가 되어잇는 곳이 만홀 줄 아나니다. 白頭山이 겨우 八票로 第八位가 된 것도 그와가튼 리유-겟지요. 妙香山과 多島海가 겨우 二票로 落選된 것도 選者의 눈이 미처 가지 못한 까닭이겠습니까. 扶餘, 慶州, 矗石樓 等地는 歷史의 背景의 觀念과 人工을 제하면은 아모러한 奇도 업는 平凡한 경치외다.²⁰⁾(미줄-인용자)

三千里의 「半島八景」속에 웨 多島海가 싸젓서요? 投票한 분을 차져보니까 多島海는 겨우 春園과 碧初 兩君이 指摘하였을 뿐이더군요. 나는 多島海가치 景致가 絶勝한 곳을 보지 못하였습시다. (중략) 아마 이것이 잘 알니지 못한 까닭은 多島海가 너무도 南海의 僻地에 잇기 財문이겟지요. 그러나 金剛山은 僻地가 아닌가요? 다 世上이 알기 시작하면 便利한 곳이 되는 法이니까 多島海의 景致도 어서 世上에 널리 알니어젓스면 조홀 줄 압니다.²¹⁾(미줄-인용자)

19) 『三千里』, 1929. 6, 40면.

20) 金東仁, 「半島八景」, 『三千里』, 1929. 11, 22~23면.

21) 金性洙, 「八景과 多島海」, 『三千里』, 1930. 1, 15~16면.

반도팔경 선정에 의문을 품고 있는 두 글에서 김동인은 ‘교통’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천연의 絶景이 있을 터인데 이번에 선정된 반도팔경은 대개 ‘交通’이 발달되어 손쉽게 갈 수 있는 곳만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부여와 경주, 축석루 등은 역사적 배경만 있을 뿐 경치로서는 평범하다는 지적이었다. 두 번째 인용문인 김성수의 글은 김동인의 글보다 좀 더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익히 알려진 장소’에 대한 의식은 존재한다. 이 두 인용문은 반도팔경 자체가 ‘景’의 의미에서 합의가 필요하고 또 언제든 변경 가능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두 번째로 반도팔경의 선정이 단순히 뛰어난 경치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역사적, 정치적, 지리적’으로 萬古의 至寶라고 표현한 편집자의 말에서 특히, 역사와 정치, 그리고 지리를 언급한 것은 바로 앞서 말했던 ‘景’의 의미에서 볼 때, 그 혼란스러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특히, 지리적인 의미는 중요한데 그 이유는 조선의 ‘八道’를 ‘상상적으로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는 이 지리적인 ‘景의 균등화’에 부여되는 2차적인 조건이다. 바꿔 말하면, 절경의 관점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장소’(道), 혹은 8경 중 몇 개를 차지했을지도 모를 ‘장소’(道)의 불차등한 관계가 의식적인 배분에 의해서 공평하게 ‘균등화’된 셈이다. 창간호의 첫 선정지 발표에서는 다른 광고에서는 볼 수 없는 반도팔경의 ‘소재지’가 표기되어 있는데 그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선정지	지역	득표수
第一景	金剛山	江原道	34
第二景	大同江	平壤	28
第三景	扶餘	忠南	21
第四景	慶州	慶北	30
第五景	明沙十里	元山	31
第六景	海雲台	東萊	10
第七景	白頭山	咸北	8
第八景	矗石樓	晋州	8

위의 표에서 보이듯이 ‘半島八景’은 강원도, 평안도,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충청도를 망라하는 선정지였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²²⁾ 만약 선정지 채택에

편집자들의 관점이 의도적으로 개입²³⁾되었다면, 이 八景이 의미하는 바는 전통적인 관습에 의해서 경치를 범주화하는 것과 지리적인 의미에서 반도 전체를 균등화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한 지리적 균등화 이후에 역사적, 정치적 의미가 또 다른 의미에서 균등하게 부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로 八景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흔히 경치를 감상하는 ‘玩景’의 의미와는 달리 이 기획은 ‘기행문’의 범위를 초월한다. 반도팔경 기행물을 지칭하는 다양한 어휘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가령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발굴’, ‘답사’, ‘탐험’이라는 용어가 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광고물에는 ‘답사기행문’, ‘탐방기행’이라는 용어가 쓰이는데 주로 ‘답사’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치보다는 ‘고적’에 호응될만한 용어가 이 반도팔경 선전에 적극 활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반도팔경’ 이벤트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실렸던 글이 축석루, 그 다음이 백두산이며, 그 이전부터 주요한의 부여 기행이 실린다는 예고를 대대적으로 감행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휴양’, ‘관광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지상에 드러나지 않은 셈이다. 경치를 ‘답사’한다는 것은 앞서 정치적, 역사적, 지리적 의미를 고구해가는 여정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로 휴양이나 관광 명소의 소개를 통해 대중성을 획득하는 의도의 한편, 학술적인 의미에서의 고적답사도 어느 정도 구상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도팔경’ 선정에 경합과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매체 내에서 ‘발신자’

22) 경성을 포함한 경기도권이 없는 것도 특징적이다. 물론, 현진건의 경우 ‘한강’을 들고 있고, 次点表에 따르면 남한산성(1), 월미도(3), 창경원 비원(1) 등도 있지만 ‘경치’의 관점에서 뽑힐만한 것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후 주목해봐야 할 문제이다. 현재의 ‘도시’보다는 ‘古都’가 선호되었고, 또 그것이 더 편집진의 의도에 맞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경성’에 대한 전통적, 근대적 ‘도시’의 의미와 경치=시골, 혹은 ‘지방’이라는 인식의 범주에서도 고찰 대상이며, 또한 식민지시기 경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식민지 지배의 총화)에 있어서도 고려해볼 만한 점이 있다. 한편, 선정자들의 ‘고향’이나 ‘정주지’의 관점에서 그 편향성을 지표화하는 게 필요하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대부분 당시 ‘경승’을 둘러싼 제국과 조선의 상호작용에 의해 ‘심상화된’ 곳이 선정되었으리라 생각되지만 대개의 일부는 선정자 자신들이 가본 곳이나 경험한 곳, 추억이 서린 곳을 택하고 있어, ‘체험장’으로서의 성격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3)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반도팔경 선전에 대해 문의한 인사는 총 37명이지만 실제로 선정지 채택이 잡지 내에 발표된 인원은 31명이다. 회신이 안 왔을 수도 있고 지면상의 관계로, 혹은 답변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했을 수도 있지만 축석루나 백두산 같은 경우 득표수가 8표로, 만약 드러나지 않은 6인에게서 공동된 선정지 채택이 답변에 나왔을 경우 불과 2표 차이밖에 나지 않는 셈이다.

(기획 주체/편집자)와 '수신자'(참가자 및 독자) 사이에 괴리가 있었음을 방증한다. 그 괴리의 존재여부는 '반도팔경'의 선정이 자연적이거나 모든 민족구성원의 동의로부터 산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포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합으로부터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발신자 측이 의도했던 바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반도팔경 선정은 기행문이라는 대중적 양식을 통해 '새로운 조선의 발견'과 전승에 일조하고 있었다. 창간호의 첫 社告²⁴⁾에서도 밝히고 있었듯이, 그리고 잡지의 제호인 『三千里』가 말하고 있듯이 반도팔경 이벤트는 '조선'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1930년대 전반기의 논의 속에서 '景'의 어의를 둘러싸고 경합하고 합의를 창출하는 현재진행형의 미디어이벤트였다. 여기에서는 '전조선'이라는 지리적 확정과 더불어 과거의 역사적인 공간으로 재현될 수 있는 장소를 환기시키고 있었던 셈이다.

4. '선택된 것(選者)'으로서의 '조선'이라는 공간과 '2차 텍스트'

'半島八景'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민족문화의 보존과 계승, 과거의 역사적 재현, '조선적인 것'의 창출 등을 목표로 창간호부터 야심차게 기획되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첫 번째 기행문이 실린다. 총 세편의 기행문²⁵⁾이 '반도팔경'이라는 제목 하에 실리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기 전에 추이과정을 살펴보면, 1930년 4월호에 “半島八景의 探訪記行은 여러가지 事情으로 그동안 遷延이 되어왔으나 來號부터 朱耀翰氏의 扶餘紀行부터 시작하여 每月 실겠나이

24) “本社에서는 名景마다 探勝團 或은 山岳征服會를 主催하여 實施할가 합니다”(社告 其二), “世界名山踏破의 經驗잇는 名士를 招聘하여 山岳講演會와 또 文藝講演會를 謹니 開催코저 합니다(社告 其三)

25)

번호	집필자	제목	게재호수	기행장소
1	김동환 (추정)	論介야 論介야 부르며 初夏의 巖石樓차저 歷史와 歌絃의 都市	1929. 6.	진주-촉석루
2	안재홍	噫! 大'白頭山'의 莊嚴	1931. 3.	백두산
3	이광수	아아 洛花岩	1933. 4.	부여-낙화암

다”(20쪽)라는 글이 목격된다. 하지만 그 다음호(5월호)에는 “六月부터 踏查紀行文掲載”(74쪽)라며 또다시 연기한다. 7월호에서도 모습을 찾을 수 없지만²⁶⁾ 그 다음호인 1930년 9월호에는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린다.

白頭山行……民世安在鴻氏執筆

=當代文豪總出=半島八景踏查開始=

來九月號本誌부터連載!

白頭山, 金剛山, 大同江, 慶州, 扶餘, 海雲臺, 明沙十里, 矗石樓는, 우리의 錦繡江山 三千里가 가진, 가장 자랑스러운 八景이외다 이것은, 일즉本社에서 全朝鮮文士五十餘氏로부터 公正한 指摘을맞어 決定한것으로 普天下의同胞-모다 肯定하여주실줄아나이다. 이제本社에서는 當代의文豪에依囑하여 現地에一一히가 보시게한뒤 그紀行을맞어來九月號부터每月一景式날니 天下에紹介하기로하였사외다. 그리하여 歷史的, 政治的, 地理的으로 萬古의 至寶를 감춘 「白頭山」부터 發掘하기로 하온바 그때문에이미 文名이 一世를 덮는 民世安在鴻氏가 方今 三伏에 不拘하고 白頭山을 探險中에잇사외다(…중략) 白頭山을 指定한 文士 (1) 洪命憲 李光洙 文一平 梁白華 崔鶴松 柳光烈 朱耀翰 宋影 金東煥 民族的의壯舉=千古의美觀!²⁷⁾

창간호에 김동환이라 추정되는 인물의 축석루 기행을 제외하고 첫 번째로 지상에 모습을 드러낸 안재홍의 기행문²⁸⁾은 백두산을 통해 ‘민족의 정기를 재확인한다. 두만강과 정계비를 바라보면서 고대의 찬란했던 문명과 잃어버린 국토에 대해 회한한다거나 천지 및 백두산의 삼림을 ‘신비스러움’(“이대森林에덥혀잇는 千古의 大秘域”이라거나 “天池에 神秘境이 이미 이리한데”)으로

26) 편집 후기 말미에 “記念號 發賣豫告 이다음 六月號는 創刊一週年の 紀念特大號로하고 여러 分의 期待에 어그러지안케 燦爛하게 꾸미어 期日대로 發行하겠사오니 만히 注文하여주심을 바라나이다”(80쪽)라는 글이 보인다. 워낙 정기적인 간행이 자금난이나 검열난으로 인해 어렸었던 시절이므로 이러한 기사가 6월호의 존재 여부를 확정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편집후기 말미에 주요한의 부여 기행과 현진건의 단편이 6월호에 실릴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어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창간호부터 6월호까지 총 6호가 발행(1929년 6, 9, 11월, 1930년 1, 4, 5월호)되었는데, 5월호의 통호가 ‘第六號’로 되어 있는 반면 영인본의 그 다음호인 7월호는 ‘第四號’로 되어 있고 영인본의 그 다음호인 9월호는 다시 ‘第八號’라고 표기되어 있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존재여부는 불투명하다.

27) 『三千里』, 1929. 9, 48면.

28) 安在鴻, 「噫! 大「白頭山」의 莊嚴」, 『三千里』, 1931. 3.

묘사하는 일반적인 경치의 완상 등에서 모두 그러한 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정계비 앞에서 “尹瓘將軍이 세운 先春嶺碑대로만 찾았어도”라고 탄식하는 농부의 말을 들으면서 국토문제를 통해 민족의식을 발견하기도 하고 天主堂 기둥에서 발견한 柱聯(白頭鍾氣 紅湍靈祠/萬古名山 一國祖宗)을 보고 그 풀이를 “이는 近世朝鮮의 되살어나는 民族意識은 여기서 萬古名山 一國祖宗을 다시 찾고 白頭鍾氣, 紅湍靈祠를 놓히어서 國土禮讚의 精에 짚어 도파워지고 國風追慕가 國民精神發揚의 源泉을 일우어 들 것을 이악이함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백두산이라는 ‘경치’를 민족의 정기와 결부시키는 의식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현저하게 드러난다.

天地의 꿈

悠悠蕩蕩한 萬古夢

宇宙의 開創은 古지엄시 오래다. 人類가 잇서온지도 아득하게 묵었다. 白頭의 峯은 높흔데 天池의 攄은 어름뜻하다.

西伯利亞의 별판에 『맘무쓰』가 울고

翰海의 진펄에 恐龍이 기고 戈壁 沙漠은 아주 內海이었다.

『발바다』의 긴 구비가 長嶺의 미창을 감돌으며

遼河의 上流까지 渤海水가 通한 것은 近古까지의 일.

黃河, 白河의 北中國의 大河는 山東 『슴』을 끼고 발바다로 쓰치었다.

山東半島는 有史以前 東夷系生活圈內에 속한 큰 슴이었스나

黃河白河의 巨河가 冲積土를 몰어 連陸한 半島로 댄들었다.

생각만해도 아득한 넷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現象도 古지엄시 許久한 歲月의 압해는 모든 點에서 無常을 걱정하는 變轉이요 幻滅이요 야터가는 꿈이었섯다.

翰海의 東方 曠野와 谷地와 山岳帶를 지나 가장 큰 山嶺에도 으뜸기는 高峯에서 는 월새엄시 북마치는 地心의 高熱이 萬丈의 劫火로써 지극히 壯嚴한 光景을 바치었다.²⁹⁾

「천지의 꿈」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 기록에서 백두산은 인류의 시대를 넘어 천지창조의 때로 거슬러 오른다. 翰海에 공룡이 살고, 고비사막이 아직 內海였

29) 安在鴻, 「噫! 大‘白頭山’의 莊嚴, 『三千里』, 1931. 3. 58면.

을 그 당시로 소급해간 ‘조선’이라는 공간은 바로 뒤에서 환인을 등장시킴으로써 조선 민족의 유구한 민족성을 확인시킨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백두산 기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한마디이다. “驛頭에서 餞送하는 諸氏를 뒤로 두고 京城으로 도라오는 길을 밧비하였다. 그림든 漢陽아 잘 잇섯느냐.”고 말한 그는 경성을 ‘한양’이라 부르는 감개에 젖는다. 백두산에서 민족의 정기를 발견하고 그 기원을 태고로 끌어올린 그에게 더 이상 식민지조선의 수도 ‘京城’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곳은 바로 ‘漢陽’이었던 것이다.

이 기행문은 사실 그가 『조선일보』에 1930년 8월 11일부터 1930년 9월 15일까지 「白頭山登陟記」라는 제목 하에 총 34회 연재한 글을 발췌, 편집해 놓은 것이다. 안재홍은 백두산에 오르기 전에도 『조선일보』에 「南鮮紀行」(1926)이라는 글을 연재하고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이 기행문이 『三千里』 지상에 모습을 나타낸 시점은 조선일보의 연재가 끝나고 단행본으로 간행된 때였다.³⁰⁾ 실제 문인들을 현지에 파송하여 기행문을 작성케 하겠다는 애초의 공언과는 달리 기존의 원전들을 발췌, 편집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논의의 초점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선택됐는지의 문제로 넘어간다. 다시 말하면 반도팔경 미디어 이벤트를 구성하는 글들은 동시대적인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의 특정한 맥락 속에 위치해 있던 텍스트(=원전)가 選者의 일정한 기준에 의해 재구성된 ‘2차 텍스트’인 셈이다. 안재홍의 『백두산등척기』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다.

南朝鮮에 사는 者이라면 登陟의 途程으로 우선 京元沿線 泰封高原의 清凉味를 玩賞함으로부터 關北沿岸의 玲瓏點綴 貞明清遠한 山海美를 볼 것이며 豆滿 鴨綠 兩江 民族盛衰의 分界와 卒本高原의 固密한 山河 或은 狼林山橐의 雄建한 排舖에서 生新發刺과 感發鼓動하는 바를 어들 것이오 그리고 또 이 沿線에는 都市 邑落이 잇고 漁村 港浦가 잇고 平野와 山峽과 人世에 絶離된 樹海 속에 農民, 火田民 或은 遜世獨存하는 殘民이 잇으며 其他 各層各樣의 生活相을 가진 大衆動態의 各部로서 의 占居하는 同胞들을 보는 것이니 이는 곳 轉變하는 社會이오 舖張된 歷史이라

이 서문에 따르자면 안재홍의 『백두산등척기』에서 독자들이 얻을 수 있는

30) 안재홍, 『白頭山登陟記』, 流星社書店, 1931.

것은 실로 다양하다. 하지만 이 텍스트가 ‘반도팔경’의 選者에 의해 재구성되어 2차 텍스트로 화했을 때, 거기에는 정계비를 보며 느끼는 국토의 경계선 문제,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발맞추지 못하고 현실에 대응하지 못한 역사적 ‘恨’, 그리고 천지에서 민족의 태고로 소급되어 단군을 민족사의 근원으로 확정하는 의식만이 남게 된 것이다. 단행본이 나온 시점과 『三千里』에 글이 게재된 시점의 동일성, 그리고 안재홍이 조선학 운동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생각해볼 때, ‘반도팔경’ 기획이 2년이라는 시간을 지체하면서까지 그 첫 주자로 안재홍의 상징적인 기행문을 재구성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반도팔경’ 이벤트의 마지막 기행문인 이광수의 글은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³¹⁾ 그것은 이 글이 이광수가 1917년에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에 연재했던 「五道踏破旅行」을 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³²⁾ 잘 알려져 있듯이 「오도답파여행」은 춘원이 『무정』을 『매일신보』에 연재한 이후 바로 신기 시작한 것이다. 1917년 6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경성을 시작으로 공주, 부여, 목포, 부산 등을 거친 이 기행문은 춘원에게 ‘조선’이라는 공간을 실제로 답사하면서 전근대성을 목도하는 계기가 됐다. 뿐만 아니라 춘원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조선총독부의 식민지통치 성과를 선전하는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하기도 했다.³³⁾ 그런 점에서 왜 1917년에 씌어진 글이, 그것도 총독부의 후원을 받아 『매일신보』와 『경성일보』라는 기관지에 발표된, 그 의도가 매우 명백한 이 글이 ‘반도팔경’ 기행문에 1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실리게 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매일신보』의 연재와 『三千里』 사이에는 서로 가감된 부분이 존재하는데 『三千里』본을 기준으로 가감된 것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매일신보』 연재본에는 존재하지만 『三千里』에 게재되

31) 李光洙, 「아아 洛花岩」, 『三千里』, 1933. 4.

32) 『三千里』의 「아아 洛花岩」은 「五道踏破旅行」의 「第五信」부터 「第八信」(『매일신보』, 1917. 6. 27~1917. 7.6일까지)과 정확히 겹친다. 안재홍의 글과 이광수의 글을 놓고 봤을 때, 이 ‘반도팔경’ 기획물의 2차 텍스트가 순전히 편집자에 의해 재구성된 것인지, 아니면 ‘개작’이라는 실제 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는 미지수다. 한편, 식민지시기 매체의 구성이 어느 정도까지 원전에 대한 2차 텍스트로 구성되었는지는 향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33) 정혜영, 「<오도답파여행>과 1910년대 조선의 풍경」,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2009. 이 논문에서 「오도답파여행」은 기행문이라기보다 오히려 지역시찰보고서에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다.

면서 삭제된 부분은 총 4부분이다. 첫째, 경성 출신이라는 미지의 여인과 대면하는 장면. 둘째, 헌병대에서 보조원을 붙여줘서 여행을 다닌다는 부분. 셋째, 과거 백제인의 영화를 상상하다가 “그러나 번쩍 눈을 뜨면 그 幻夢은 다 사라지고”라는 한 구절. 넷째, 船上에서 만난 인물들 중 한 여인에 대한 생각과 大王浦에 도착해 향락에 취해 결국 나라를 잃은 의자와와 옛 영화가 스러져간 현재의 풍경. 반면, 『三千里』에만 새롭게 삽입된 부분은 “洛花岩, 洛花岩 웨 말이 업느냐”라는 후렴구가 반복되는 시 한 수³⁴⁾와 다음의 부분이다.

歷史의 모든 記錄이 다 燬滅하고 말드라도 平濟塔이 几然히 百濟의 舊都에 聳는동 안 吾族의 精神이 崇高하고 洗鍊된은 잊치지 못할 것이다. 只今에 血管中에도 이 祖先의 血液의 數滴이 흐를지니 이것이 新沃土를 맞나고 新日光을 마드면 만다시 燦然히 甦을 피울 날이 있을 줄을 믿는다.

今日의 朝鮮의 建築과 工藝를 出하는 朝鮮人이 百濟塔을 作成한 朝鮮人의 子孫이라한들 누가 고지들으랴. 今日의 朝鮮人은 衰頹하였고 墮落하였고 醜惡하고 無能無爲하게 되고말았다.

高麗中葉以降으로 李朝來에 至하는 七八百年間에 三國時代의 勇壯하고 健全한 崇高하던 精神은 因循 消滅되고 말았다. 偏僻狹隘한 儒敎思想은 朝鮮人의 精神의 生氣를 말끔 食盡하고 말았다. 孔子의 儒敎가 生한지 二千餘年에 그것으로 亡한 者가 잇슴을 드렸스나 興한者 잇슴을 듯지 못하였다. 儒敎思想은 一部 修身正心의 資料는 되는지 모르되 決코 治國平天下의 道는 아니다. 儒敎는 眞실로 潑刺한 精神의 活氣를 죽이고 모든 文明의 萌芽를 枯死케하는 曝陽이다.

三國時代의 朝鮮人으로 하여금 今日 朝鮮이 되게 한 것은 그 罪가 오직 儒敎思想의 專橫에 있다.

나는 朝鮮史에서 高麗와 李朝를 削去하고 싶다. 그리고 三國으로 溯去하고 싶다. 그중에도 李朝時의 朝鮮史는 決코 朝鮮人의 朝鮮史가 아니오. 自己를 巴리고 支那化하고 말라는 언더 奴隸的 朝鮮人의 朝鮮史다. 그것은 決코 내 歷史가 아니다. 나는 三國時代의 朝鮮人이다. 高句麗人이오 新羅人이오 百濟人이다. 高麗를 내가 모르고 李朝를 내가 모른다.

西洋의 新文明이 古思想復活에 잇다는 것과 同一한 의미로 朝鮮의 新文明은 三國時代의 復活에 잇을 것이다. 아이구 나는 泗水城의 넋날에 도라가고 싶어 못 견뎌겠다. 나는 平濟塔을 바라보고 다시 바라보며 昔日의 祖先을 戀慕한다³⁵⁾(밑줄-인용자)

34) 『삼천리』, 1933. 4, 60면.

이상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일신보』 연재본에서 삭제된 부분은 총독부의 호의를 입어 여행에 임하고 있다는 정황들이었다. 반면 『삼천리』본에 삽입된 내용은 ‘조선조’에 대한 부정의식과 삼국시대로의 동일시였다. 이광수의 반도팔경 기행문, 더 정확하게 오도답파여행의 2차 텍스트는 민족적 이라기보다 ‘백제인’이라는 아이덴티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속에서 ‘경치’, 혹은 주변의 공간은 “江山은 조흔 江山이다. 그러나 그 江山도 그 主人을 어더야 빛이난다. 夫餘의 江山은 암만해도 文雅한 百濟人을 어더가지고야 비로소 빛이난다. 只今은 百濟人이 업슴애 그 江山을 淸라서 淸내일가”³⁶)라고 탄식하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의 자랑스러운 산하는 현재의 모습=폐허, 혹은 방만한 조선인, 즉 비문명의 조선인으로 규정되고 과거의 찬란했던 문명으로만 소급된다. “나는 靑草 위에 蘗석 주저안저서 힘껏 그때 일을 想像하려 하였다”³⁷) (밑줄-인용자)는 말에서 현실은 그 찬란했던 과거의 힘 앞에 ‘상상’이라는 프리즘을 거쳐야만 재현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과거로의 회귀와 현재 조선이라는 현실의 탈각, 이것이야말로 『三千里』의 편집자들이 ‘반도팔경’ 기획, 더 넓게는 ‘조선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의 눈앞에 대두하는 ‘현실(real)’이었다. 『三千里』의 반도팔경 기획은 그 최초의 기획에서부터 분명 식민지 현실에서의 민족적인 각성과 찬란한 과거의 역사를 통해 ‘조선’이라는 공간을 재규정하려 했지만 거기에는 위와 같은 수행자들의 간극과 텍스트 원전 사이에서 빚어지는 마찰이 식민지-제국의 자장 안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다.

5. 결론

1941년 삼천리사에서는 『半島山河』³⁸)라는 단행본을 출간한다. 김동환의 편집으로 총 16인의 필자가 ‘景勝中心의 八景’과 ‘史蹟中心의 八景’을 답사한

35) 『삼천리』, 1933. 4, 60~61면.

36) 이광수, 「아아 落花岩」, 앞의 글, 59면.

37) 이광수, 위의 글.

38) 金東煥 編, 『半島山河』, 三千里社, 1941.

기행문 모음집이다.

景勝 중심의 팔경		史蹟 중심의 팔경	
이광수	靈峰 金剛山	이병기	夫餘 落花岩
김억	藥山東臺	양주동	溟城 牡丹峰
염상섭	水原 華虹門	박종화	南漢山城
노천명	仙境 妙香山	전영택	義州 統軍亭
한용운	明沙十里	이기영	陝川 海印寺
모운숙	赴戰高原	최정희	開城 滿月臺
노자영	天安三巨里	이은상	耽羅 漢拏山
함대훈	南原 廣寒樓	김동환	慶州 半月城

위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창간 당시 반도팔경 이벤트와 견주어 봤을 때 경승과 사적을 구분하는 의식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성 주변의 경기도권과 전라도, 제주도가 포함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리고 그 공간 설정의 중요한 기준이 바로 ‘景勝’과 ‘史蹟’, 즉 조선이라는 공간의 역사화가 기본 전제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 단행본에 실린 대다수의 기행문은 여행지에서의 감상과 견문, 그리고 정보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오히려 역사적 현장을 방문하여 과거 문헌이라는 ‘전거’에 근거한 ‘탐사’에 가깝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 단행본에 실린 대다수의 기행문도 역시 ‘選者’의 기준에서 자유롭게 못한 ‘2차 텍스트’였다는 점이다.³⁹⁾ 그리고 그 선

39)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기영(『삼천리』, 1940. 6. 1), 양주동(『삼천리』, 1940. 5. 1), 박종화(『삼천리』, 1940. 4. 1), 전영택(『삼천리』, 1940. 12. 1), 이병기(『삼천리』, 1940. 10. 1), 김동환(『삼천리』, 1938. 10. 1), 이광수(『금강산유기』 중 비로봉 부분과 상당수 겹침), 노천명(『삼천리』, 1940. 7. 1), 모운숙(『삼천리』, 1940. 9. 1), 그리고 김억의 『약산동대』는 마지막의 시가 『삼천리』(『향토시인이 다시 읊는 민요』, 1937. 5. 1)에 실려 있고 한용운의 경우에는 『삼천리』(1933. 9)에 실린 글이 전체의 앞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대부분 『삼천리』 내에 실린 것이긴 하지만 그 글이 과연 『삼천리』에 처음 실린 것인지의 확인할 수 없다. 각 필자들의 전집에도 원전 비교 없이 출처를 달아놓은 경우가 있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다만, 노자영 같은 인물은 『동아일보』 지상에 다수의 기행 연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들 또한 1940년을 전후한 텍스트라기보다는 시대를 달리하는 텍스트가 1940년을 전후해 ‘편성’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단행본도 원전의 선택과 편집에 의한 2차 텍스트로, 1941년의 텍스트라고 말하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왜 이러한 텍스트들을 ‘선택’했는

정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民謠發祥地’였다.

八道山河의 情緒綿綿한 民謠發祥地와 古城樓臺의 巡禮記로서 여기에는 우리 祖上 때부터 口傳하여오든 民謠가 있고 多情多恨한 傳說이 있고, 朝鮮의 情調를 읊은 時調가 있다. 이 實로 詩歌와 史紀의 一大 심포니-라할 名著!⁴⁰⁾(밑줄-인용자)

김동환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의 민요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오성호에 따르면 민요에 대한 김동환의 관심은 1920년대 소위 ‘민요 서정시 운동’에 내재된 봉건성과 복고주의, 국수주의를 비판하면서 계급적 시각에서 민요의 재해석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온건하고 타협적인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민요조 서정시를 쓰는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다.⁴¹⁾ 자신이 직접 창작한 민요조의 시 외에도 『三千里』 지상에서 1930년 중반을 전후로 민요를 소개, 게재하는 등 그의 민요에 대한 관심은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흥미롭게도 『三千里』 지상에 실린 「半島山河」를 말하다⁴²⁾라는 좌담회에서 ‘민요’를 중심으로 한 이 단행본 구성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창간 후 정확히 10주년을 맞는 이때에 반도산하를 말하는 좌담회에서 金億, 朴鍾和, 盧子泳, 田榮澤, 金東煥으로 구성된 참가자 5인은 ‘민요’를 통해 ‘조선’이라는 공간을 ‘여행’한다. 하지만 이 ‘민요’라는 것도 식민지 제국의 자장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미 총독부가 1912년 경에 전조선을 대상으로 ‘俚謠’ 및 ‘俚諺’ 조사에 나서고 당시 총독부 학무국 편집과 편수서기로 부임해 있던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도 제주도 민요 채집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1920년대에도 이치야마 모리오(市山盛雄)의 『조선민요의 연구(朝鮮民謠の研究)』(坂本書店, 1927. 10) 등 일본인들에 의한 성과들이 제출되고 있었다.⁴³⁾ 민족적 공통감각을 고취시키고 그 단

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어야 한다.

40) 『大東亞』, 1942. 3, 19면.

41) 오성호, 『김동환』,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42) 「半島山河」를 말하다, 『三千里』, 1939. 6.

43) 조선에서 ‘민요’ 개념의 발생과 유입 과정을 총독부의 조사와 일본인의 학술 저서, 조선인 연구자의 관심과 국문학사의 기술 문제 등으로 세세하게 고찰하고 있는 임경화(『민족의 소리로서의 민요』, 『근대 한국과 일본의 민요창출』, 소명출판, 2005)의 글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일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민요 또한 그 기원과 장래가 불명확한 기반 위에 서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그것은 엄연히 민족문화의 보존과 육성이라는 외피 안에 식민지의 미개함을 근대의 문명적인 시선에서 발견하는 도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三千里』의 ‘半島八景’ 이벤트는 전혀 다른 시공간에 위치해 그 의미의 맥락을 달리하던 원전 텍스트를 발췌, 가공하거나 혹은 개작함으로써 새로운 2차 텍스트를 생성해냈다. 그리고 그러한 2차 텍스트는 1930년대 중반 조선학운동의 전사(前事)로서의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광수의 예에서 발견한 것처럼 그것은 제국 일본의 자장 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 부자유스러움이 『三千里』의 미디어이벤트를 조건 지은 2차 텍스트 내부의 마찰에 의해서 발원함은 식민지 텍스트의 존재조건이란 과연 무엇이었던가에 대해 숙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三千里』, 『大東亞』, 『別乾坤』, 『每日申報』, 『朝鮮日報』, 『東亞日報』
金東煥 編, 『半島山河』, 三千里社, 1941.
安在鴻, 『白頭山登陟記』, 流星社書店, 1931.
李光洙, 『吾道踏破旅行』, 『李光洙全集 18』, 三中堂, 1963.
李光洙, 『金剛山遊記』, 『李光洙全集 18』, 三中堂, 1963.

<연구논저>

- 김병구, 「고전부흥의 기획과 ‘조선적인 것’의 형성」, 민족문화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조선적인 것’의 형성과 근대문화담론』, 소명출
판, 2007.
오성호, 『김동환』,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해안, 2007.
이혜령, 「1920년대 『동아일보』 학예면의 형성과정과 문학의 위치」, 성균관
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제52집, 2005.
임경화, 「민족의 소리로서의 민요」, 『근대 한국과 일본의 민요창출』, 소명
출판, 2005.
정진석, 『언론유사』,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정진석, 『인물한국언론사』, 나남출판, 1995.
정혜영, 「〈오도답과여행〉과 1910년대 조선의 풍경」,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2009.
조영복, 「1930년대 신문 학예면과 문인기자집단」, 한국현대문학회, 『한국
현대문학연구』 제12집, 2002. 12.
천정환, 「초기 『삼천리』의 지향과 문화민족주의」, 민족문화사학회, 『민족
문화사연구』, 2008.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3』, 현암사, 2004.
有山輝雄, 『甲子園蹴球と日本人』, 吉川弘文館, 1997.
吉見俊哉, 「メディア イベント 概念の諸相」, 津金澤聰廣 編著, 『近代日本の

メディア イベント』, 同文館, 平成八年.
紅野謙介), 『懸賞小説の時代』, 『投机としての文學』, 新曜社, 2003.

【Abstracts】

Media Event of *Samcheonri* and 'Reprocessed' Joseon

Park, Yong-jae

The 『*Samcheonri*』 since the first publication worried about how the space called 'Joseon' will be regulated. As a result, it concentrates on discovering and informing 'Joseon' through various plannings. It shows the history of the preceding age of Koreanology Movement, which is one of important currents of Korean National Movement in the middle of 1930s.

The 'Koreanology Movement' that 『*Samcheonri*』 discovers a peculiarity of the past Joseon people and preserves it appears through 'Media Event'. Especially, the planning of 'Peninsula's Eight Sceneries' of the first edition was a typical media event that selects 8 beautiful sceneries of Joseon and asked travel sketches to famous persons.

However, unfortunately, only three actual travel sketches were printed. Interestingly, the travel sketches were not texts of the same decade but were texts that are reprocessed from texts of 1920s. It was that after an editor or authors extracted from or adapted the original text, they published the text.

This has a meaning as a secondary text regarding the original tex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view why a specific text was 'selected' and how it was 'processed'. This work paradoxically told the fact that this planning was not free from the influence sphere called colony-empire.

key words: *Samcheonri*, Media Event, Koreanology Movement, Peninsula's Eight Sceneries, secondary text.

이 논문은 2009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1월 1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0년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